논어 3편 팔일 1장 · 쓰기 연습

孔子謂季氏：「八佾舞於庭。是可忍也，孰不可忍也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孔 子 謂 季 氏 八 佾 舞 於 庭 是 可

忍 也 孰 不 可 忍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